

21세기 불교의 본분사는 상생과 화합 그리고 실천

천태종, 상월 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천태종 중흥조인 상월 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저명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에서 다수의 학자들은 부처님 연기법에 근거한 상생과 화합을 주문했다. 그 실천방법으로는 나눔을 강조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과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중)은 11월 12-13일 금강대에서 '미래세계와 불교'를 주제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발표에 앞서, 12일 대강당에서 열린 개회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독경 ▷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천태종 감사원장 춘광 스님) ▷인사말 ▷치사 ▷개막식 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권기중 국제학술대회 집행위원장(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 천태종 중흥조인 상월 스님은 불타 이후 2500년 불교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를 주저하지 않았다. 천태종은 4바라이를 위시한 기본 계율은 엄수하면서도 10선계(十善戒) 중심의 교단을 운영하고 있고, 수행과 노동을 이원화하지 않았다. 난해한 선(禪) 수행보다 대중을 위한 염불을 수행의 요체로 삼았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은 상월 스님의 중생구제 원력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태종 중흥회의장 도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상월 스님은 예국불교·생활불교·대중불교의 가치를 높이 들고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불교로 발전시켰다"며 "이번 행사가 상월 스님의 크고 깊은 뜻을 널리 알리는 한편, 21세기의 과학문명 시대에서 불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개막식사에서 "국제적인 행사들이 많았지만 오늘처럼 많은 불교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유례가 없었다. 오늘 함께 자리한 학자들이 발표하는 주옥같은 논설들은 길이길이 우리 불교학계에 기억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문화 문제 등 새로운 여러 현상과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권기중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은 '미래세계의 종교와 원각사상'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권 원장은 "미래의 종교는 모든 대중과 함께 하는 종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중 원장은 종교가 대중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일상과 하나된 수행생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전문 종교인도 일과 수행을 병행하는 주경야선(晝耕夜禪)의 수행풍토를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 권 원장의 시의적이다.

권기중 원장은 "미래세계의 불교는 목표 이상으로 현실적 행위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며 "염불수행의 강조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수행에 참여시킬 방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폴 해리스 미 스탠포드대 교수는 기조강연 '미래세계와 불교'에서 미래불교를 ▷불교학의 발달단계 ▷불교에 대한 대중적 인식 ▷참여불교 ▷불교와 과학의 네가지로 진단했다.

해리스 교수는 "미래 불교는 세상 속에서 승가의 존재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비구스님보다 비구니스님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스님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단지 사회복지사로 머문다면 우리는 더 큰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 해리스 교수는 제도적 구조가 결여된 불교적 가치의 사회 적용에 대해서도 라칭거 추기경의 말을 빌려 "간다라 보살이 맨해튼 아파트를 장식하는 것 이상의 영향력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리스 교수는 "불교계는 불자수를 늘리는데 우선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탐욕 분노 무지가 가져오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승가의 유지와 전통 계승에도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

작금의 인류는 대화하거나 죽거나 불교계가 종교간 대화 이끌어내야 상생 없으면 대중은 종교 등 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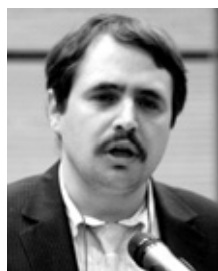
김영표 동국대 교수는 주제발표 '종교 문화의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의 불교'에서 "불교는 종교간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종교간·이데올로기간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권기중



김성현



블라디미르 디흐노프



데미언 키언



다케가쿠초



로버트 버스웰



레너드 스위틀러



박문호



박해당



타다 요쇼



유승무



조성택

김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세계종교사 흐름과 패러다임 전개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 ▷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서구의 포스트모던 사조 인용 ▷다른 종교인보다 성숙한 불교인 ▷제 종교간 다양성 인정과 특수성 존중 ▷부처님의 이웃종교에 대한 태도 계승 ▷원효의 화쟁회통해석학 연구 ▷세계평화를 위한 대화운동 전개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가 틸라카라트네 스리랑카 콜롬보대 교수는 '종교윤리와 신세계 질서'를 주제발표했다. 틸라카라트네 교수는 "모든 인류는 그들의 언어와 행동·사고를 통해 연결돼 있다. 환경을 공유하고 기쁨·슬픔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이 지역을 위해 지역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아사가 틸라카라트네 교수는 "종교는 올바른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이치있는 대안이다. 그러나 종교적 분열이 그치지 않는다면 일반인들이 종교를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너드 스위틀러 미 템플대 교수는 '국제화와 문명간의 대화'에서 "작금의 인류는 대화를 하거나 죽음을 맞거나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류 문명은 도시의 인구집중에서 발달했고 그 중심에는 종교가 자리해 왔다"며 "지역과 종교, 국가를 초월해야 종교와 이념이 온전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갈등 조정에서 불교의 역할

빈부, 남녀 등의 차별은 무상한 것이라는 인연 조건 따라 발생하기 때문 연기·불성 바로 알면 모두가 평등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주제발표 '불교의 경제윤리'에서 불교 가치와 경제논리의 조화를 시도했다. 정 총장은 "과거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였다면 미래의 세기는 '만남과 융섭'의 시대이다. 이 조화를 위해서는 '나눔'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병조 총장은 "문화는 경제든 민족주의적 배타성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며 범세계적인 문화적 안목과 비전을 강조했다. 내 것이 소중하다면 남의 것도 소중하다는 평범한 인식의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화추안 중국사회과학원 부교수는 '빈부·남녀 차별과 불교의 역할'을 통해 "불교는 빈부에 원인이 있다고 봤으나, 차별 없는 평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지화추안 부교수는 "인연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은 모두 무상한 것이다. 인연의 조건에 변화가 발생하면 중생의 빈부, 남녀 등의 차별성도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화추안 부교수는 "불교의 연기사상과 일체중생의 불성사상 등에 의거하고 현대적인 해석을 거치면 빈부와 남녀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남북한 사회통합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발표 했다. 유 교수는 "한국불교의 민족주의적 색채가 분단된 한민족의 정서를 하나로 묶을 것"이라며 "남북불교계의 통합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블라디미르 디흐노프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불교와 평화주의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에서 "불교가 반전 평화운동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불교공동체에 대한 외부의 영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다문화시대 종교간 화합

상대종교가 공격한다고 불교도 해서야 나와 남은 설 새 없이 소통하는 존재들 내가 너, 너가 나인 연기를 바로 알면 상생은 절로 실천돼 모두가 자유롭다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주제발표 '종교간의 갈등과 폭력'에서 조계종 결사추진본부의 평화선언을 옹호했다. 황 교수는 "상대종교가 불교를 비방·공격한다고 해서 불교 또한 상대종교를 비방·공격한다면 이는 더 이상 불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도흙 한양대 교수는 '불교에서 타자의 개념과 자타상생의 길'을 통해 "인류와 자연은 서로 조건이 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상호작용을 한다. 인드라마처럼 연가된 전체 속의 하나이자 그 자체가 전체를 담고서 상즉상입(相即相入)하는 에코시스템(Eco-system)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찰나의 순간에도 나와 남은 서로 조건이 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고통을 떨치고 내가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연기를 깨달아 상생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해당 태동고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불교와 유교의 갈등과 조화'에서 "불교는 조선 시대 유가의 불교 말살정책 속에서도 원리적 동일성과 현상적 불교 우월성을 통해 불교와 유교의 공존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엄한진 한양대 부교수는 '한국 거주 국제이주민에게 종교는 무엇인가'에서 "한국 내 이주민이 늘면서 종교인의 유입도 늘고 이를 통해 종교계의 국제 교류 또한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학시대의 불교

오늘날 문제는 과학발전 아닌 욕망의 탓 과학과 종교는 대립 아닌 대화를 할 때 생태문제 등 과제 풀고 미래 대비하려면

제 4 차 선암사 재적승려 분한신고

귀의 삼보하옵고

금년에 실시하는 제 29대 주지 선거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분한신고를 실시하오니 아직 신고를 필하지 않은 재적스님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접수하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신문 573호(9월20일) '승려(교임, 전법사) 의무금 미납자 자격 분한 정치 공고' 제하로 공고된 바와 같이 분한신고를 필하지 않은 재적승려는 종령에 의해 자격분한이 자동 정지되어 주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1. 승적원부 (총무원 발행)
2. 이 력 서 (사진 부착)
3. 건당확인서 (선암사 합동 건당자에 한함)

신고기간 : 2011년 11월 28일 17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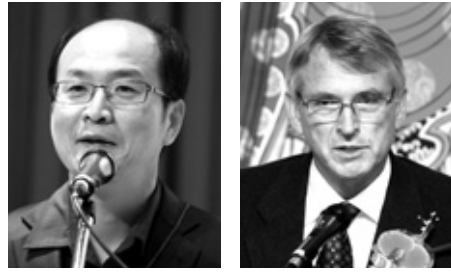
접 수 처 : 선암사 종무소

문 의 : 061)754-5247, 061)754-5953

지역불교 극복해야 해답 보인다



아상가



엄한진

홀 해리슨



세운 스님



황순일

신국

생태운동 등 불교의 사회참여 더 늘려야

최종석 금강대 교수는 주제발표 '과학시대의 불교의 인간관'을 통해 "오늘날 생태문제는 과학의 발달 때문이 아닌 과학기술과 접목된 인간 욕망의 극대화"에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과학과 종교가 대치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종교와 과학이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미언 키언 英 런던대 교수는 '불교도는 장기기증자가 돼야 하는가'를 주제발표했다. 키언 교수는 "불교계가 장기기증을 지지하는 것은 >육신에 대한 집착의 제거 >자비심의 완전한 표현 >훌륭한 과보를 위한 선업 등의 이유가 있다"며 "보살 정신에 입각해 널리 권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문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행동과 의미 그리고 인과율'을 통해 "인간 현상은 무의미한 자연에서 의미를 생성해 언어를 통한 가상적 세계상을 건립한 것"이라며 "인간은 그 의미장에 구속된 존재이다. 의미와 무의미 상호 생성관계를 체득하는 상태가 초월적 일체감의 세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송리파오 중국불교협회 중국불교문화연구소장은 '현대 생태환경의 곤경과 불교의 생태윤리 지원'에서 "불교가 미래 인류를

위한 큰 공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송리파오 소장은 "녹색생태 활동 등 불교계의 사회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베르나르 포 미 콜럼비아대 교수는 '불교명상과 뇌과학'을 통해 "불교와 뇌과학이 동시에 발전하려면 뇌과학자는 불교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의 갈 길은

한국불교에서 조계종 절대선이나 만해의 개혁기도 평화 부작용 있어 한국불교는 세계 속에 우뚝 서 있어 중국과도 일본과도 교류 더 늘려야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근대한국불교사 재고'에서 "조계종은 근대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전통복고'이며 반근대적 성격의 종단이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진단과 함께 민족주의적 역사 기술이 조계종의 형성과정을 '민족불교'로 지칭시켜 만해 등의 개혁프로그램을 역사적 돌출 사건으로 폄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조성택 교수는 "항일과 친일이라는 확립적 민족주의 구도 속에서 잘 포착되지 않던

근대한국불교의 다양한 모색과 고민들을 이해하려면 '딜레마'의 관점으로 근현대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버스웰 美 UCLA 교수는 주제발표 '대륙적 관점에서 본 한국불교'에서 "한국불교는 한반도의 불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버스웰 교수는 "한국불교는 불교의 일본 전래 뿐 아니라 중국불교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한국 유학승의 존재감으로 인해 한국불교는 중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말했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한국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 넘어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한국불교에서 출가와 재가의 관계'를 통해 >재가불자를 위한 쉬운 법회의식 >부처님 경전 말씀에 근거한 격조 있는 설법 >출·재가가 만나 하나된 법회 >법고창신하는 법회 문화 창조를 제안했다.

이시이 코세이 日 고마자와대 교수는 주제발표 '한·일 불교학의 미래'를 발표했다. 이시이 코세이 교수는 "불교사 등 고대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에게 한국을 배워야 한다. 반대로 한국 연구자 역시 일본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시이 교수는 한·일 불교학계 논문의 다국어 번역과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안했다.

황사니엔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사장은 '한·중 불교학의 미래'에서 "불교학은 신앙에 기반해야 한다. 신앙이 없다면 불교학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사니엔 사장은 한국·중국 불교학의 교류가 미래 불교학의 새 지평을 열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래사회와 원각사상

상월 스님의 대중·생활·애국불교는 대중과 함께 미래 불교 이끌 가르침 지관수행은 현대인 정신건강에 도움 자신 있고 남 돕는 것이 보살다운 삶



상월조사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참가자들

김상현 동국대 교수는 '상월원각의 불교 개혁사상'을 주제발표 했다. 김 교수는 상월 조사의 대중불교·생활불교·애국불교를 설명했다. 김상현 교수는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하며 누구라도 믿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으며 전할 수 있는 불교가 대중불교이다"라고 말했다.

전태종 교육원장 세운 스님은 '불교수행의 새로운 지평'에서 "상월 스님은 지관(止觀)을 수행의 근간으로 삼아 정령영불을 대중의 수행방법으로 정착시켰다. 이는 중생구제의 깊은 자비심에 기인한 탁월한 수행관이다"라고 말했다.

이봉춘 동국대 교수는 주제발표 '미래사회와 한국 천태종'을 통해 "모든 교의와 사상을 하나로 포용하면서 태동한 총화 지향적 종단인 천태종이 애국·생활·대중 불교 구현을 통해 상생과 조화된 미래문명을 선도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리스롱 中 북경대 교수는 '천태지관의 현대적 의의'에서 천태종 수행법인 지관법에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리스롱 교수는 "천태지관 수행법은 과거에는 참선수행의 초급단계였으나, 오늘날에는 모두가 간편하게 배울 수 있는 실용과정이자 입문단계가 됐다"고 설명했다.

타다 코쇼 日 대정대 명예교수는 '마하지관과 중생구제'를 주제발표 했다. 타다 코쇼 명예교수는 "인간으로서 지금, 생을 받는 과를 생각했을 때 그것은 전생의 인의 과로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코쇼 명예교수는 "전생에서는 여러 불·보살의 중생구제의 교화와 원을 온몸으로 받고, 그 공덕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느꼈을 때 자신의 생활에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불도수행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보살로 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타다 코쇼 명예교수는 "자신을 잊고 남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 궁극의 자비이고,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정정케 하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사시나무를 보고도 인과와 연기를 배웁니다

美 생태심리학자 바필드 박사, 진흥원서 초청강연

"밖으로 나가 야생 속에 앉아라. 스스로 직접 보라. 부처님이 읽었던 자연의 경전을 읽어라. 그리하면 법(Dharma)이 자명해 지리라."

야생의 체험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美 생태심리학자 조나단 에이 바필드(Jonathan A. Barfield·사진) 박사이다. 바필드 박사는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침)이 11월 17일 불교방송 다보원 법당에서 주최한 대원불교사상강좌에 초청돼 생태교육과 야생의 체험에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솔하게 들려줬다.

바필드 박사는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것 >무상(無常)함을 아는 것 >인과(카르마)를 아는 것 >살의 고통을 깨닫는 것 등 4가지 요소가 인간의 마음이 법(法)을 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4가지 생각은 야생에서 배워, 나무, 유골과 흙을 접하는 동안 마음에 깊이 다가온다. 이런 생각들은 생태학과 자연사의 체험적 공부를 통해 깊어진다"며 "4가지 생각은 자기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지구 자체와 만날 수 있도록 의지를 변화시켜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필드 박사는 미국 남서부 지역의 산악과 사막의 경계에 위치한 야생지역에



살면서 이 4가지 경험을 몸소 깨달았다.

그는 "자연에 방랑하면서 만나는 수 억년 된 바위들과 시간을 가로지르는 협곡과 화석들을 보며 나 자신에게 '나는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왔을까? 도대체 내가 태어날 확률은 얼마인가?'라고 묻게 된다"며 "부처님은 인간의 귀한 생명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숙고하는 것이 악령의 두려움, 귀한 삶을 헛되이 하는 두려움, 참된 자아를 찾고자 하는 열정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바필드 박사는 광대한 야생에서 생태계의 역학관계와 변화무쌍한 복잡함을 보면서 무상(無常)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바필드 박사는 "어느 날 홀로 긴 여행을 하던 중 부처님이 야생의 자연 속에서 방랑할 때도 이렇게 앉았을 거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며 "야생지역에서 걷고 명상하고 자연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4가지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너는 기자 oasis1983@hanmail.net

경전 대중화 돼야 불교문학 포교 쉬워진다

조병무 동덕여대 명예교수, 불문협 심포지엄서 발표

"불교문학이 좀 더 불교적인 것이 되려면 불교경전이 하루 속히 일반에게 보급돼야 한다."

조병무 동덕여자대학교 명예교수(사진)는 한국불교문학협회(회장 선진규)가 11월 11일 '불교 포교를 위한 문학의 역할'을 주제로 주최한 '제21차 불교문학심포지엄'에서 불교문학을 통한 포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발표한 '불교문학이 포교에 미친 영향'을 통해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쉽게 풀이하면 인생과 자연이 모두 불교적이지만 그 정신과 교리의 근본을 알려 주는 데는 보다 깊은 성찰과 노력이 문학가나 불교계가 합심하지 않고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불교문학작품으로 잘 알려진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等身佛)>을 예로 들며 불교교리와 경전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등신불"에서는 소신공양의 불교적 세계관에 의한 고도의 인간 정



적 관념을 나타내 주고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공양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하지만 왜 등신불이 돼야 하는가라는 의문 속에서 새로운 화두

를 풀어가는 인간적인 고뇌가 일반 독자들에게는 심오한 선적 경지가 어렵기 때문에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많은 독자들은 불교 소재 작품에서 불교가 지닌 무한한 교리에 매료돼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화두 속에서 불교에 접근한다"며 "불교가 지닌 교리와 자신의 세계관에서 접근하는 빠른 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불교문학작품은 불교적 상징이나 은유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며 불교적 교리에 의한 사색과 고통과 탐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너는 기자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선사의 혼이 살아숨쉬는 민족성지 麟角寺

www.ingaksa.org 인터넷검색 인각사

2011 제3회 일연 삼국유사·학술제 및 문학제

■일 시 2011년 11월 25일(金) 오후 3시 ~

■장 소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강당

■주요행사 1. 논문 공모 당선작 시상식
2. 당선 논문 발표
3. 일연문학지 출판기념식
4. 축하음악회 및 저녁공연

주최 _ (사) 일연학연구원
주관 _ 인각사/삼국유사사업추진위원회
후원 _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군위군, 대구시교육청

대한불교조계종 인각사 주지 사단법인 일연삼국유사연구원 원장 도 권 합장

麟角寺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번지 TEL:(054)383-1161 FAX:(054)383-3758

보물 428호 보각국사정조지탑